

붙임 6. [별지 제10호 서식] (제5조 관련)

## 자 기 소 개 서

### 교육, 연구, 대외협력, 행정, 봉사활동 등에 관한 총장후보자의 자기 소개서 (분량 : A4용지 5매 이내)

저는 2004년 한밭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교육, 연구, 대외협력, 행정, 봉사활동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건축과 사회’, ‘단지계획’, ‘건축설계’ 과목을 담당하며 건축학과 학생들의 교육이 꾸준히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 ‘창의성 멘토링 프로그램에 의한 건축설계교수법 혁신방안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방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축설계 수업에서 실험하면서 나아진 결과를 새로운 교수법으로 제안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연구분야에서는 2008년부터 ‘U-city 미래비전과 중장기 전략’ 연구에 참여하면서 로드맵 작성 을 위한 공간단위 설정 연구를 비롯해 여러 의미 있는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다시 한국연구재단의 융합연구로 이어졌고, 2019년부터는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인 ‘치유형 재난쉘터 개발연구’를 수행하는 성과로 이어졌고, 2021년 발표한 ‘개인용 치유공간 계획기준 설정을 위한 뇌파분석 실험연구’ 논문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제 전문분야는 도시설계로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 되는 영광을 거두었고, 2011년에는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서 가작을 수상하기 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2014년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설계공모안, 2015년 잠실종합운동장 국제설계공모안, 2016년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안, 2017년 행복도시 유 럽마을 계획안, 2019년 행복도시 6-4생활권 및 6-3생활권 블록형 단독주택 마스터플랜 등을 설 계하였습니다.

대전시를 위해서는 2008년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특성화계획’, 2009년 ‘대전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계획’, 2013년 ‘대전 도안지구 19블록 총괄계획’, 2019년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과 ‘대전산업단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및 ‘골목재생사업 모니터링 위탁용역’,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2020년 ‘대전 스타트업파크 조성 전략수립’ 등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 관련해서는 대전과 세종 및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 충청도시포럼 운영위원, 도시계획위원, 자체평가위원, 기술자문위원, 공공건축가 등을 역임하였고, 대전광역시 건축위원, 도시계획위원, 경관위원, 수석 공공건축가, 초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사업 총괄계획가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위원, 보령시 도시계획위원 및 건축위원, 공주시 공공디자인위원 등으로 역할 하였습니다.

언론 분야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중도일보 독자위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시사오딧세이’ 컬럼에 고정패널로 지역 내 시사 문제에 대해 기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KBS, MBC, TJB, CMB에 토론페이지로 출연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총장으로서 한밭대학교 발전을 위한 외적 지원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밭대학교 제6대 이월묵 총장 시절 처음으로 우리대학 보직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교무부처장, 교수학습센터장, 교육연수원장, 기획홍보처장으로 역할 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는 순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일반대 전화에 이어 대과제로 통합하는 과정에 해당학과를 찾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계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임기 첫 정부지원사업이 에이스사업이었는데, 등대식, 자전거식, 볼링식이라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우수한 평가로 사업을 수주한 이래, 링크사업을 비롯하여 도전한 정부지원사업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야간을 주간으로 돌리면서 1:1 전환을 지켜낸 일은 꽤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우리대학은 산업대 체제로써 주간이 45%, 야간이 55%이면서 야간자원이 꾸준히 줄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주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 산업대 체제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굳이 대학이 전환을 추진할 경우 인원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담당 사무관부터 조목조목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서울과기대와 경남과기대가 50%로 줄이며 전환하는 가운데도 우리대학만 1:1로 바꾼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정책도 꾸준하고 강한 의지로 바꿔 낼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지역협력관 부지를 기재부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 우리대학 부지로 편입시킨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대전시는 해당 용지를 친환경 시범 주택단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였는데 소유권이 기재부에 있음을 확인하고 설득 끝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대학 소유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국제교류원도 총장님의 교육부를 움직여 계획을 세운 다음 기재부와 국회로부터 예산이 지켜지도록 설득하는 자리에 함께했으며, 그린에너지관도 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입니다.

저는 당진 출생이면서 공주사대부고를 졸업한 지역 연고가 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유명 정치인들을 동문으로 두고 있으며, 원성수 공주대 총장도 고등하고 선배인 등 많은 유력인사를 인적 네트워크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총장으로서 학교발전을 위해 활약하는 데에 큰 도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제8대 총장 리더쉽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 점이 지역 연고가 없어서 번번이 각종 외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Visional but rational’,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꿈은 크게 갖되 실천방법은 집요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축가로서 설계할 때에 그 공간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이용자를 생각하면서 옹색하지 않고 큰 미래를 그리는 일을 생각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재정여건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대학의 미래를 원대한 꿈으로 설계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이고 빈틈없는 방법들을 실천방안으로 동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학발전을 성과와 자부심으로 일궈내겠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총장후보자 : 송복섭

